

허무 · 죽음과 맞서기

- 오상원 단편 <猶豫>의 의미 -

김도희*

차 례

- | | |
|----------------|-----------------|
| I. 서론 | III. 지나친 절망의 음영 |
| II. 삶 - 유예된 죽음 | IV. 결론 |

I. 서론

우리 문학사에 있어서 1950년대 중반, 전후 민족 현실을 불모지로 인식하고 문학적 태도에 있어서 새로움을 창조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출발한 작가군이 있다. 흔히 이들을 신세대 작가라 하는데 대표적인 소설가로 孫昌涉·張龍鶴·金聲翰·吳尙源·徐基源·李範直·鮮于輝 등을 들 수 있다. 이들은 전후에 새롭게 유입되는 서구 사조와 함께 문학의 현대성 추구라는 공통된 인식을 바탕으로 하여 새로운 문학 이념을 형성한 사람들이었다. 또한 신세대 작가들은 현실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그 현실에 저항하고 비판할 수 있는 문학적 태도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누구보다도 절감했기 때문에 전쟁 체험으로 얻게 된 불안과 허무·극한상황을 극복하려는 의식을 작품화하기에 주

* 동의대학교 강사

력했다. 이러한 경향을 갖는 신세대 작가 중에서도 인간의 조건을 극복하고 행동하는 작가, 현존에의 충실성을 강조한 작가로 吳尙源을 들 수 있다.

吳尙源은 1930년 평안북도 선천 태생으로 1953년 서울대 문리대 불문과를 졸업한 후 오랫동안 기자 생활을 했으며, 1955년 『韓國日報』에 단편 <猶豫>가 당선되어 작가로서 활동을 했다. 그보다 앞서 1953년 신국협회의회의 회곽현상 모집에 <녹스는 破片>이 당선되기도 했으나 본격적으로 소설을 창작한 것은 <猶豫>에서부터 비롯된다. 또한 그는 1958년 <謀反>으로 제3회 동인문학상을 수상하기도 한 작가다.

그의 작품에 대한 연구는 그동안 긍정과 부정의 측면에서 비교적 다양한 평가가 있어 왔다. 우선 그의 작품을 앙드레 말로의 행동주의 문학과 연계선상으로 보고 그를 인간 존재의 발굴과 자아 발견에 노력한 작가라고 한 언급을 비롯하여¹⁾ 의식 청년을 기용하여 전쟁과 정치 권력의 비정성을 고발하고 전장의 인간상 조형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는 점, 감상성을 제거하고 긴박한 템포의 비정한 문체를 사용하여 객관성을 확보하고 있다는²⁾ 긍정적인 지적이 있다. 한편, 그의 작품은 전후의 상황을 현실로 정직하게 받아들여 방향 모색을 피하는 진지한 자세를 갖추지 않고 실존주의로 대표되는 당대 정신사의 기류에 편승한 흔적이 역력하다는 부정적인 평가도 있다.³⁾ 또한 그의 작품에서 테러나 죽음과 같은 행동을 통한 자기 극복의 방식은 그 자체로 허무적 속성을 가지기 때문에 진정한 인간성의 가치 회복이란 애당초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테러·죽음과 같은 방식은 부조리한 상황에 대한 극단적인 항거의 의미는 있어도 그것 자체가 진정한 인간성의 가치 회복을 의미해 주지는 못한 다는 지적도 있다.⁴⁾

이와 같은 여러 가지 긍정과 부정적인 평가에도 불구하고 그의 작품은 1950년대 전쟁 상황에서 죽음과 극한의식을 다룬 문학이라는 점, 그리고 당시 유행한 서구 실존주의 사상과 행동주의의 영향을 받았다는 점은 공통된 지적

1) 김상선, 「인간존재의 발굴」, 『신세대 작가론』(일신사, 1982), p.321.

2) 유종호, 「청년의 문학」, 『동서한국문학전집』(동서문화사, 1987), pp.517~520.

3) 손광식, 「오상원론」, 『근현대문학의 사적 전개와 미적 양상(Ⅱ)-해방 후 편』(도서출판 보고서, 2000), p.237.

4) 정희모, 『1950년대 한국 문학과 서사성』(깊은샘, 1988) p.216.

이다.⁵⁾ 따라서 이 글에서는 吳尙源의 대표작인 단편 <猶豫>에 행동주의적 요소가 어떻게 형상화되어 있는가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猶豫>는 해방과 6·25 동란이라는 혼란과 고통 속에서 작품 활동을 했던 吳尙源이 학창시절 접한 실존주의적 경향이 작품에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전후의 불안한 현실 속에서 자기 자신을 확인하고자 한 대표적인 작품이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는 우선 기존의 연구를 바탕으로 하되, 작품의 면밀한 분석과 검토를 통해 그동안 吳尙源이 실존주의의 영향을 받아 행동주의적 경향의 작품을 남기고 있는 작가라는 단편적인 언급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아울러 <猶豫>가 가지고 있는 실존주의 소설로서의 한계성과 더불어 표현상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살펴보기로 한다. 이와 같은 연구를 위해 이 글에서는 실존주의 이론을 바탕으로 하며 사회주의적 비평 방법도 함께 인용하고자 한다.

II. 삶 - 유예된 죽음

서구에서 실존철학이 학계에서 가장 널리 논의된 시기는 제 1차 세계 대전 이후 사회의 격심한 해체기를 거친 1920년 후반부터 약 10년에 걸친 동안이다.⁶⁾ 당시에 이 사상이 대중화될 수 있었던 까닭은 세계 대전을 거치면서 전쟁이 대중에게 직접적으로 체험되고 그로부터 인간의 근본적 실존 상황이 대중들 사이에 전면적으로 자각되었기 때문이다.

실존철학은 헤겔에서 출발하여 하이데거, 사르트르에 이어져 내려와 오늘날에 이르고 있는 사상으로 크게 두 갈래의 흐름이 있다. 하나는 야스퍼스와 마르셀 등으로 대표되는 유신론적 실존주의자로, 기독교인인 그들은 자기 이상

5) 특히 그의 작품이 프랑스 행동주의 작가인 앙드레 말로의 작품에서 영향을 받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작가 자신도, “確實하지는 않지만 아마 앙드레 말로의 <征服者>, <人間的 條件>을 탐독하던 그 時節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 속에 힌트를 얻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싶다.”(오상원, 「초조한 마음」, 『한국전후문제작품집』, 신구문화사, 1960, p.422.)라고 직접 언급하기도 했다.

6) 曹街京, 『實存哲學』(博英社, 1991), p.19.

으로부터 인격신의 구원을 믿는 신앙을 절대화함으로써 참된 자신의 삶의 뜻과 가치를 찾으려 했다. 다른 하나는 무신론적 실존주의자로서 하이데거와 사르트르로 대표된다. 이들은 신의 구원 없이 자기의 의지를 절대화시켜 자기 존재의 의의와 가치를 찾으려 한 사람들인데,⁷⁾ 현대 실존주의 문학은 거의가 이 무신론적 실존주의에 바탕을 두고 있다.

무신론적 실존주의자에게 신은 없다. 따라서 인간 존재는 개념에 의해 규정되기에 앞서 먼저 실존하고 다음에 스스로 생각하고 행위함으로써 자기 자신을 만들어 나가기 때문에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는 대명제가 성립된다. 그러므로 사람은 스스로가 만들어가는 것 이외에 아무 것도 아니라고 하는 사르트르의 견해가 실존주의의 제 1원칙이 된다.⁸⁾ 사르트르는 실존주의 철학을 문학에 접목시킨 사람으로, 그에 의하면 현실은 행동 속에만 있을 뿐 사람은 자신의 창안 이외의 아무 것도 아니고 자신을 실현하는 한도 내에서만 존재한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그의 행동의 전체 이외의 아무 것도 아니고 그의 삶 이외에 아무 것도 아니다.⁹⁾ 곧 사르트르는 자신의 자유 이론에 입각하여 참여의 적극성과 행동주의를 강조했다.¹⁰⁾ 이는 인간의 운명이란 인간 자신 속에 있다는 것이므로 하나의 낙관적인 이론이라고 할 수 있다.¹¹⁾ 곧 실존주의는 사람에게 자기 자신의 행동 밖에는 희망이 없다는 사상, 사람으로 하여금 살 수 있도록 하는 유일한 것은 행동이라고 하는, 하나의 행동주의 이론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 문단에 실존주의가 본격적으로 소개된 것은 해방 이후지만 그것이 문학 이론으로 중심이 되는 영향력을 발휘한 것은 전후 1950년대였다. 이 한국전쟁은 정신사적 측면에서 사회적 부조리에 대한 비판의식의 강화를 불러 일으켰으며 패배의식과 자조 의식이 야기되었고 한국의 전통적인 가치관이 결정적으로 바뀌어져 버린 계기가 되었다.¹²⁾ 전쟁의 폐허 속에서 존엄하다고 생각

7) 장 폴 사르트르 著, 『實存主義는 휴머니즘이다(방곤 譯)』(文藝出版社, 1997), p.13.

8) *Ibid.*, p.16.

9) *Ibid.*, p.31.

10) 曹街京, *op. cit.*, p.64.

11) *Ibid.*, p.34.

12) 金宇鐘, 『韓國現代小說史』(成文閣, 1995), pp.316-317.

해 왔던 인간의 생명이 의미없이 사라지는 것을 체험한 사람들은 그 대답을 기존 세상에서 찾기를 포기하게 되고, 인간의 내면으로 관심을 돌려 실존과 본질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제기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들은 불안과 허무의식에 바탕을 둔 존재론적인 실존을 문학의 영역에 도입시키고, 그 실존 상황이 한계치 이르렀을 때 거기에 대한 출구의 모색이 행동주의로 연결되었다. 절망적이고 불안한 모든 경향에 반발하여 일어난 행동주의는 현실적인 위기가 지식인들을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직접적 행동으로 몰아 넣음으로 시작된다. 그들은 위기와 불안, 혼돈에 당면하여 인류 공동의 문제와 인간의 근원적 문제를 탐구하고 행동했는데, 이것이 행동주의 사상의 본질적인 측면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행동주의 작가들은 목숨을 건 대담한 모험과 혁명을 통해서 인간의 용기를 시험하고 인간의 한계를 초극하려 했고 거기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찾으려 하기도 했다.

특히 2차 대전으로 치달는 파시즘에 대한 위기와 경제 공황으로 불안 사조가 형성될 무렵, 당시의 혼란과 그로 인한 극한상황을 극복함으로써 존재를 확인하고 인간성을 옹호하려는 문학 경향이 대두되었는데, 프랑스의 행동주의 작가인 앙드레 말로, 생 맥퀴테리 등에 의해 작품화되었다. 이 중 행동주의 문학의 대표 작가로 평가되는 앙드레 말로는 당대의 여러 사건과 얽혀 있고, 작품도 대부분 직접 뛰어 들었던 모험적 행동과 관련되어 있다.¹³⁾ 그가 이와 같은 정열적인 행동인이 된 것은 서구 문명의 위기에 대한 심각한 인식과 인간의 근원적인 고독과 부조리에 대한 절박한 의식 때문이었다. 따라서 그의 작품은 대부분 행동에 의하여 인식하는 새로운 인간의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¹⁴⁾ 거의 대부분의 작품에 인간의 근원적인 고독을 느끼는 주인공이 등장하

13) 앙드레 말로는 1923년에 아내와 함께 고고학의 답사 연구를 위해 인도차이나로 건너가서 여러 가지 모험을 했으며, 1925년에는 중국 국민당과 공산당이 합작한 북벌 통일 혁명에 실제로 참가하여 상해 점령에 가세하기도 했다. 그는 또 1927년 이후에는 만니치즘, 유대인 탄압 타격 운동 등 정의 실현을 위한 지성인의 투쟁을 선두에서 실천했다. 1936년의 스페인 내란 때에는 퇴인 항공대 사령관으로 정부군에 가담했는데 이 때 여러 차례 부상을 당하고 포로가 되었다가 탈출하기도 했다.

14) 예를 들어 광동의 폭동을 소재로 한 <정복자>, 인도차이나의 탐험 여행을 토대로 하여 쓴 <왕도>, 상해 혁명에서 취재한 <인간의 조건>, 스페인 내란에 가담

고 그들이 자기의 존재를 확인하기 위하여 생사를 가름하는 절망과 공포의 극한상황에 몸을 던지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 그들은 과감한 혁명적 모험을 통해 죽음에 대한 공포로부터 벗어나며, 순간순간마다 자유로운 의지에 의한 새로운 인간의 조건 및 창조적인 인간성의 새로운 모습을 발견하게 되며, 때로는 체제에 대한 반항을 드러내기도 한다.

우리 문학사에서 실존주의 문학의 영역 중, 위와 같은 행동주의적 경향을 띤 작품을 발표한 대표적인 작가가 吳尙源이며, 그러한 경향이 강하게 드러난 작품 중의 하나가 바로 <猶豫>다. 그의 소설에서 전쟁 참가자가 등장 인물로 설정된 경우 그 인물들은 거의 대부분이 포로나 낙오자의 처지에 있거나 그것을 경험한 인물, 즉 극한상황에 처해 있거나 그 상황을 경험한 인물들이었다. 그는 혁명, 모험 등 극한상황을 배경으로 하여 그 속에서 인간의 본질과 가치를 탐구하며 모든 인간이 보편적으로 갖게 되는 문제를 인식하는 데에 작품의 목적을 두었다. 실존주의에서 말하는 극한상황이란 현존재가 불확실성에 대해 지니는 불안의식의 정점을 이르는 말이다. 인간의 현존재는 본질적으로 상황 속에 있는 존재이며, 그는 구속되어 있는 상태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다. 어떠한 상황에 구속되어 있는 현존재는 그 속에서 피할 수 없이 자신을 책임져야 한다. 따라서 상황은 인간이 감수하지 않으면 안 될 어떤 무엇으로, 오직 적대자와의 투쟁 속에서만 나의 외적·내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다. 이때 현존재는 본래성과 가능성을 차단당한 채 그 상태에서 불안을 느끼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간은 한계성에 부딪히게 되고 이 한계성이 극에 달한 상황 속에서 인간의 유한성이 경험되기도 한다.

이와 같은 극한상황의 설정은 <猶豫>에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데, 까뮈의 <페스트>나 사르트르의 <벽>에서도 유사한 점을 찾을 수 있다. 먼저 까뮈의 <페스트>에는 페스트의 상황이 아주 사실적으로 묘사되고 있다. 페스트는 치명적인 전염병이기 때문에 치료약도, 예방약도 없어 당국은 오랑시를 폐쇄해 버린다. 따라서 외부로부터의 구원을 기대할 수 없고 밖으로 탈출할 수도 없는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다. 또 사르트르의 <벽>에는 생포된 프랑스 레지스탕스 청년이 등장하는데 그는 사형 선고를 받고 집

한 경험에 의하여 씌어진 <희망> 등의 작품이 그것이다.

행을 하루 앞두고 벽 속에 감금되어 있다. 그에게는 탈출의 기회도, 죽음을 피할 길도 전혀 없다. <猶豫>도 이와 같다. <猶豫>에 등장하는 주인공은 대학 재학 중 군대에 소집된 지식 청년으로, 수색대의 소대장으로 전투에 참가하여 낙오하는 바람에 포로가 되어 존재의 가치가 부정되는 고립된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이다. 그는 적에 완전 포위되어 退路는 철저히 차단되어 있는 상황에 처해 있다. 식량도 없을 뿐더러 원군이 올 희망도 전혀 없는 그는 영하의 기온에 오직 죽음을 앞에 두고 있을 뿐이다. 이와 같은 상황 설정은 기본적으로 한국전쟁이라는 대사건으로부터 비롯된다. 우선 작품의 서두에서부터 한국전쟁 직후의 비인간적인 세계가 묘사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소속 사단은? 학벌은? 고향은? 군인에 나온 동기는? 공산주의를 어떻게 생각하시오? 미국에 대한 감정은? 그럼…… 동무의 말은 하나도 이치에 정
치 않소.¹⁵⁾

위의 인용문을 두고 볼 때 현대는 공산주의 아니면 자본주의라는 식의 흑백논리가 지배하는 시대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等價的 사고가 지배하는 세계에서 인간이란 적 아니면 동지로 이분되고, 이 때 적이면 바로 죽일 대상이 되고마는, 그야말로 인간은 이데올로기의 노예이자 전체주의의 한 부속품에 불과한 존재다. 따라서 이러한 현실에 처한 인간은 언제나 모든 것을 자기 혼자서 선택해야 하는 고독한 존재일 수밖에 없다. 다음의 인용문에서도 인간은 고독한 존재라는 사실이 잘 나타나고 있다.

무릎까지 파묻히는 눈 속을 헤치며 남쪽으로 남쪽으로 걸었다. 몇 번이고 의식을 잃고 그대로 쓰러졌다. 때로는 눈보라와 종일 싸워야 했고 알 길 없는 방향을 더듬으며 헤매어야 했다. 발이 얼어 감각이 없다. 불안, 절망이 그를 엄습하기 시작하였다. 내가 잠은 이 방향이 정확한 것인가? 나의 지금이 위치는? 상의할 아무도 없다. 나 하나뿐. 그렇다고 이대로 서 있을 수도 없다. 그는 한걸음 한걸음 눈 속을 헤치며 걸었다. 어디까지 이렇게 걸어야 하는 곳인가? 언제껏 이렇게 걸어야 하는 것인가? 밤이면 눈 속에 묻혀서 잤다. 해가 뜨면 또 걸어야 한다.¹⁶⁾

15) 吳尙源, <猶豫>, 『新韓國文學全集』(語文閣, 1979)

16) *Ibid.*

인용문을 보면 주인공은 한겨울 눈보라 속에서 오직 혼자만이 방향도 위치도 모르는 곳에 고립된 처지에서 스스로 헤쳐나가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 이는 실존주의에서 말하는 인간은 본래 고독한 존재라 함을 잘 말해 주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실존주의에서 인간 존재의 본질은 고독이기 때문에 인간은 그 존재 조건 자체가 외로움으로 집약된다. 그들은 신이 없는 세계에서 모든 것이 허용되는 결과로서 사람은 자신의 내부나 외부에 의지할 곳이 없어 고독하게 되어 버린다고 한다.¹⁷⁾ 그러기에 사르트르는 인간을 이 세계에 아무 뜻없이 내던져져 있는 우연한 존재,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는 존재라고 생각했으며 여기에서 인간의 자유가 비롯된다고 했다. 그는 특히 인간은 자신의 선택과 책임 하에 스스로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¹⁸⁾ 하면서 인간 존재는 그가 행동하는 모든 것에 대해 책임이 있고 또 자유로울 수밖에 없다고 했다. 따라서 행동주의적 관점에서 볼 때 개별적인 인간은 던져져 있는 존재로서 다만 행동할 뿐인 존재라고 할 수 있다.

한편, 행동주의적 관점에서의 인간은 거짓된 삶 살기를 거부한다. 다음의 인용에서,

나는 동무와 같은 인물을 아끼고 싶소. 나는 동무를 어느 때라도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를 가지고 있소, 문지방으로 스며 오는 가는 실바람에 스칠 때마다 화롯불이 붉게 번져어 갔다.

나는 동무를 훌륭한 청년으로 보고 있소. 자, 담배를 태우시오.

…… (중략) ……

그렇다면 동무처럼 불쌍한 청년은 이 세상에 또 없을 거요 나는 심히 유감스럽소. 동무의 그 태도가 참으로 유감이오.(인제 모든 것은 끝나는 것이다.) 왜 동무는 그렇게 내 얼굴을 차갑게 쳐다보고만 있소. 한마디 대답도 없이 입을 다문 채…… 알겠소 나는 동무가 지키고 있는 그 침묵으로 동무가 말하고 있는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소. 유감이오.¹⁹⁾

17) 장 폴 사르트르 著, *op. cit.*, p.23.

18) 정명환 외, 『20세기 이태올로기와 문학사상』(서울대학교 출판부, 1997), pp.40-41.

19) 吳尙源, *op. cit.*

라고 한 구절에서는 주인공이 고립된 상황, 즉 죽음을 바로 눈 앞에 두고 있는 극한상황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상 전향을 요구하는 회유에 조금도 의지를 굽히거나 목숨을 구걸하지 않음을 볼 수 있다. 이는 인간의 근원적인 고독을 느끼는 주인공이 생사를 가름하는 절망적인 상황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저것된 삶 살기를 거부하고, 죽음에 대한 공포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의지의 인간이 되려 하는, 행동주의 정신의 진수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하겠다.

또한 작품에는 주인공이 혼자 현실 속에 던져져 있는 상황에서 인간 존재에 관한 물음을 제기하여 참인간을 갈구하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나온다.

이것을 모르고 눈 속에서 밤을 보냈다니…… 소복이 짐들이 둘러앉은 마을! 가슴이 뭉클하고 눈물이 핑 돌았다. 그는 눈물을 머금으며 마을로 내려갔다. 마을 어귀에 다다랐다. 집 문들이 제멋대로 열어 젖혀진 채 황량하다. 눈이 마을 하나 가득히 쌓인 채 발자국 하나 없다. 돼지 우리, 소 헛간, 아…… 사람들이 사는 곳! 그는 방 안으로 들어갔다. 열어 젖힌 장롱…… 방 바다 하나 가득히 먼지 속에 흩어진 물건들…… 옷! 찢어진 낡은 옷들! 그는 그 옷들을 주워서 꼭 움켜쥐었다. 아, 사람의 냄새!②)

이 장면은 생 백뤼페리의 <인간의 대지>에서 리비아 사막에 불시착한 주인공이 사막 한가운데서 밤중에 불을 피워 놓고 어디서 누군가가 자신의 신호에 대답해 주기를 갈구하는 장면과 유사하다. 비록 구조를 바라는 것이기는 하나 '살려 달라'고 단순한 비명을 지르는 것과는 달리 인간에게는 인간만이 가장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외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면서 인간이란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그리고 나는 누구이며 어떻게 살아야 거짓 없는 삶이 될 것인가 하는 등의 근본적인 의문에 도달하고 있다. 이는 실존주의에서 갈구하는 참인간이란 어떠한 것인가 하는 물음을 직접적으로 제기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 이 작품에는 주인공 외에 또 한 사람의 행동주의자가 있는데 다음의 구절이 그러한 때문이다.

20) Ibid

“생명체와 도구와는 다른 것이요, 내 이상 더 무엇을 말하고 싶겠소? 나는 포로가 되었을 때 비로소 내가 확실히 호홉하고 있는 인간이라는 것을 알았을 뿐이요, 나는 기쁘오, 내가 한 개 기계나, 도구가 아니었다는 것, 하나의 생명체인 인간으로서 살아 있었다는 것, 그리고 인간으로서 죽어 간다는 것, 이것이 한없이 기쁠 뿐입니다.”²¹⁾

위의 인용에서 보면 이 말을 하고 있는 청년 역시 무엇보다 인간이 가장 소중한 존재라고 말하고 있다. 그래서 그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거저된 삶을 살기보다는 의연하게 죽음을 맞이하고자 하는 행동주의자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주인공 자신도 청년과 의식, 신념이 같으므로 이는 곧 두 사람을 동일시하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다. 그것은 다음과 같은 장면에서 더욱 명백하게 드러난다.

눈앞이 빙빙 돈다. 그는 마치 저 언덕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 자기인 것만 같았다. 순간 그는 총을 꼭 움켜쥐었다. 내일을 위해 오늘의 싸움을 피한다는 것은 비겁한 수단이다. 지금 저 눈길을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는 그가 아니라 나 자신이다. 내가 지금 피살당하여 가고 있는 것이다. 싸야 한다. 그는 사수를 겨누었다. 숨죽이는 순간, 이미 그의 총구에서는 빗발같이 총알이 쏟아져 나갔다. 쓰러진다. 분명히 두 놈이 쓰러졌다. 그는 다음다음 연달아 쓰러졌다.²²⁾

그는 눈길을 걸어가고 있는 청년이 마치 자기인 것만 같이 느끼며, 던져진 현실에서 죽음과 의연히 맞서고 있다. 특히 주인공 자신이 죽음에 맞서서 죽음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다음에서도 볼 수 있다.

바야흐로 불길을 뿜으려는 총구를 등뒤에 반으며 조금도 주저 없이 정확한 걸음걸이로 피해자는 눈길을 맨발로 헤쳐 가고 있다. 인제 몇 발의 총성과 더불어 그는 무참히 쓰러지고 말 것이다. 곧바로 정면에 눈 준 채 조금도 흠어질 줄 모르는 그의 침착한 걸음걸이…….²³⁾

여기서 주인공의 죽음에 대한 의식은 하이데거의 철학에서 그 의미를 찾을

21) *Ibid.*

22) *Ibid.*

23) *Ibid.*

수 있다. 그에 의하면 인간은 던져져 있는 존재이나 그저 던져져 있기만 하는 존재에 그치지 않고 또 앞을 향하여 내던지기도 하는 존재다. 내던지는(投企, Entwerfen) 존재는 미래를 향하여 기획하고 계획한다는 뜻이다. 이 때의 인간은 던져졌다는 과거적 필연에 그저 밀리기만 하거나 아무 하는 일 없이 막연하게 미래를 기다리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지하게 나의 미래를 스스로 결정하면서 살아나간다. 던져져 있으면서도 앞으로 내던지는(被投的 投企, geworfener Entwurf) 존재는 죽음에 대해서도 앞서서 기다리거나 불안에 허덕이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앞질러(先驅, Vorlaufen) 죽음을 떠맡을 것을 결의함으로써 '죽음으로부터의 자유'를 얻는다.²⁴⁾ 마찬가지로 <猶豫>에서 주인공과 동일시된 청년은 죽음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죽음으로 자신의 몸을 내던지고 있다. 이는 곧 죽음에 맞선 행동주의자의 행동이라고 볼 수 있는데, 주인공과 동일시된 청년뿐만 아니라 주인공 자신 역시 죽음으로 향해 가고 있다. 그와 같은 행동주의자의 모습은 다음의 장면에서 볼 수 있다.

결음걸이는 그의 의지처럼 또한 정확했다. 아무리 한걸음 한걸음 다가가 는 결음걸이가 죽음에 접근하여 가는 마지막 길일지라도 결코 허튼, 불안한, 절망적인 것일 수는 없었다 흰 눈, 그 속을 걷고 있다. 흰칠히 트인 벌판 너머로, 마주 선 언덕, 흰 눈이다. 연발하는 총성, 마치 외부세계의 잡음만 같다. 아니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그는 흰 속을 그대로 한걸음 한걸음 정확히 걸어가고 있었다.²⁵⁾

행동주의적 관점에서 볼 때 죽음이란 결코 인생의 외곽에서 불시에 꼭 한번 닥쳐올 불가피한 사건이 아니다. 그것은 생의 출발점으로부터 생 전체의 의미를 규정하는 권위다. 죽음은 생의 연속에 끊어지는 곳이 아니라 생의 의미가 집중되는 초점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실존적으로 파악된 죽음은 현재의 우리 자신에게로 돌아오게 하는 힘을 가지고 생의 연속을 하나의 긴장된 통일체로 뒷받쳐 주는 중심이 된다. 그것은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의 사건이

24) 韓釜淑, 『實存主義』, 『現代의 哲學(韓釜淑·車仁錫 共著)』(서울대학교 출판부, 1982), p.21.

25) 吳尙源, *op. cit.*

아니라 현재의 시간 속에서 항상 나 자신에게로 다가 오고 있는 가장 실증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²⁶⁾ 인간이 처한 모든 상황 중에서 가장 극한상황이 바로 이 죽음이라는 것인데, 실존이 자각된 깊은 곳에서 자신의 죽음을 형성하는 태도를 취할 때 그것은 곧 자신의 완성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작품 <猶豫>에서 주인공 자신이 죽음을 선택한 것은 끝까지 인간적인 자세를 잃지 않겠다는 신념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그에게 산다는 것은 인간이 태어난 본연의 그대로 싸우다 죽는 것일 뿐 더 이상 아무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이 작품을 통해서 그가 말하고 있는 것은 인생이란 「죽음이 유예된 삶」에 불과하다는 것, 인간 일반에게 이미 선고된 죽음에의 집행유예에 불과하다는 것으로서 하나의 잉여물에 불과하다는 현실 인식, 즉 부조리에 관한 인식이라고 할 수 있다.²⁷⁾ 이와 같은 점에서 볼 때 극한상황에서 吳尙源이 제시하고 있는 인간 조건의 그 첫째는 바로 부조리의 인식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인간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주어진 인간 조건에 충실함으로써 이를 극복할 수 있다는 행동주의적 사고가 표출된 것이라 볼 수 있겠다.

곧 吳尙源의 <猶豫>는 전쟁이라는 극한상황 속에서 인간 존재의 의미와 인간 행동의 의미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을 제기하고 있는 작품이다. 절박한 공간, 절망적 상황에서 인간은 무엇을 할 수 있으며,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하는 보편적 질문을 던지면서 행동과 자기 의식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인간이 처한 부조리성과 무의미성을 전쟁과 전후 현실같은 절망적 상황 가운데서 인식하고, 이와 같은 절망적 상황의 탈출구를 행동성의 강조로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서 이 작품은 행동주의 소설로서의 특징을 명확하게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6) 曹街京, *op. cit.*, p.142.

27) 부조리는 전통적 문화 및 문학의 신념과 가치 체계에 대한 하나의 반항으로 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나타났는데 이를 본격적으로 문학에 도입, 유행시켰던 사람은 까뮈다. 그에 의하면 부조리란 인간의 현상을 환경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존재, 목적이 없는 존재로 보는 것, 즉 부조화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한다.(Arnold P. Hinchliffe, 『不條理文學(黃東奎 譯)』, 서울大學校 出版部, 1986. p.1)

Ⅲ. 지나친 절망의 음영

그러나 이 작품을 두고 완벽한 행동주의 소설, 즉 정통 실존주의 작품이라고 하기에는 내용면과 표현면에서 문제점이 발견된다. 먼저 실존주의에서 말하는 허무주의적인 색채가 너무 짙게 깔려 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실존주의에서 말하는 인간은 아무 의미 없이 내던져져 있는 우연한 존재이므로 인간을 보는 시각 또한 허무주의적인 색채가 강하다. 또 실존주의적 관점에서는 있는 그대로의 현실이 최악이기 때문에 비관주의적(pessimiste)일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곧 염세주의는 아니다. 사르트르는 세계의 현실이 절망적이라고 해서 인생이 곧 절망적인 것은 아니라고 한다. 인간에게 고독과 절망은 최후의 것이 아니요, 생은 그 피안에서 시작된다. 절망은 인간으로 하여금 그의 운명이 사실로서 그의 수중에 있음을 자각하게 하는 적극적인 경험이다. 최대의 절망이라고 할 산의 부재도 물건처럼 인간을 제조하는 조물주의 제거를 의미하는 한 진정한 인간의 복권을 가능하게 만드는 희망이다.²⁸⁾

그러므로 실존주의에 있어서는 허무가 바로 절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이 소설의 다음과 같은 구절을 보면 극한상황에 처해 있는 주인공은 목표도 없이 그저 인생이란 어떤 이유나 대답도 없는, 절대적인 가치가 상실된 순간에 오직 태어난 본연의 그대로 싸우다 죽는 것일 뿐이라고 하여 지나친 허무와 절망에 빠져 있음을 볼 수 있다.

싸우다 끝내는 죽는 것, 그것뿐이다. 그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무엇을 위한다는 것, 무엇을 얻기 위한다는 것, 그것도 아니다. 인간이 태어난 본연의 그대로 싸우다 죽는 것, 그것뿐이다라고 생각하였다.²⁹⁾

위의 인용문은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최고의 가치를 상실한 허무주의적 색채가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구절이다. 곧 인생이란 무엇을 위하여거나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인간이 태어난 본연의 그대로 싸우다 죽는 것일 뿐이라는 극단적인 허무주의 사상을 노출하고 있다. 여기서는 인생을 인간이

28) 曹街京, *op. cit.*, p.343.

29) 吳尙源, *op. cit.*

태어난 본연의 그대로 싸우다 죽는 것뿐이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 삶의 의의를 적극적으로 증명하는 능동적인 사상이기보다는 오히려 정통적인 실존주의의 개념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표현으로 보인다. 따라서 허무와 맞서고 있는 소설이기는 하나 그 허무의 개념이 적극적인 개념으로서보다는 오히려 절망적인 데로 다가가고 있다는 것이 이 작품이 지니고 있는 실존주의 소설로서의 한계성이라 할 수 있겠다.

또한 다음의 인용문에는 2차 대전 때 일본군에 소집되었다가 일본군의 항복과 더불어 포로생활을 거쳐 이역을 표류하다 군으로 들어선 선임하사에 대한 이야기가 언급되고 있다.

선임하사, …… (중략) …… 군대 생활이 무엇보다도 재미있다는 그, 전투가 자기 생활 속에서 제일 신이 나는 순간이라는 그였다.

“사람은 서로 죽이개끔 마련이오, 역사란 인간이 인간을 학살해 온 기록이니깐요. 그렇게 생각지 않으시오? 난 전투가 일어나면 호흡이 벅차고 내가 겨는 총구에 적의 심장이 아른거릴 때마다 나는 희열을 느낍니다. 그 순간 역사가 조각되고 있는 것같이 느껴지거든요. 사람이란 별 게 아니라 곧 싸우다 쓰러지는 것을 의미할 겁니다.”³⁰⁾

위에서 볼 수 있듯 선임하사는 전투가 일어날 때가 자기 생활 속에서 가장 신이 나는 순간이라고 하면서 그를 마치 전쟁광과 같은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역시 실존주의 소설의 본질적인 성격에서 벗어나는 내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한편, 행동주의 작품에서는 일반적으로 感傷的인 요소가 나타나지 않는 것이 보통이다. 작품에서 感傷的인 요소는 문체를 통해서 더욱 구체적으로 드러난다고 볼 때, 吳尙源은 이 작품에서 感傷보다는 오히려 非情한 문체를 사용하여 간결하고도 사실적인 묘사를 하는데 그 예는 다음의 인용문에서 잘 살펴볼 수 있다.

그들이 정신을 잃고 쓰러졌을 때는 이미 새벽이 가까워져었다. 산 속의 새벽은 아름답다. 눈 속에 덮인 산 속의 새벽은 더욱 그렇다. 나뭇가지마다

30) Ibid.

소복이 쌓인 눈이 햇빛에 반짝인다. 해가 적이 높아졌을 때 그는 겨우 몸을 일으켰다. 선임 하사는 피에 붉게 젖은 한쪽 다리를 딱 움켜쥔 채,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다. 검붉은 피가 오른편 어깨죽지와 등에 질개 얼룩져 있다. 그는 급히 선임 하사를 부축하여 일으켰다.³¹⁾

위의 인용문은 전형적인 하드 보일드 문체(hard boiled style)로 쓰인 문장이다. 이는 非情·冷酷를 뜻하는 용어로, 사건을 무감정의 냉혹함 그 자체로, 또는 도덕적 판단을 전면적으로 거부한 비개인적인 시점에서 묘사하고 있는 문체를 말한다. 불필요한 수식을 일체 빼버리고 신속하고 거친 묘사로 사실만을 그리는 이 기법은 행동주의 소설에서 행동에 중점을 두는 하나의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곧 간결한 문체로 객관적인 자연 배경을 묘사하는 전형적인 행동주의적 기법의 문장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작품에는 위의 인용문에 쓰인 非情 문체를 통해서도 행동주의적 요소가 드러나는 것은 분명하나 그 표현이 지나치게 어색한 부분도 있다.

기아와 피로. 점점 낙오되고 줄어 가는 소대원, 첩첩이 쌓인 눈과 추위, 그리고 알 수 없는 방향을 더듬으며 온갖 자연의 악조건과 싸우지 않으면 안 되었다.³²⁾

위의 문장을 보면 간결한 문장의 非情 문체, 곧 행동주의 작품에서 볼 수 있는 박력 있는 문장을 표현하려는 의도에서 그랬겠지만, 끊어진 토막 문구들을 배열하는 느낌 때문에 오히려 단절감이 크게 느껴진다. 이와 같은 단절감은 박력 있고 냉혹한 느낌보다는 신과조나 연극조의 울림으로 다가오게 된다.

또 이 소설에는 행동주의 소설에서 사용하는 문체적인 특징상의 한계 뿐만 아니라 그밖에도 다음과 같은 문장에서는 적확하지 못한 어휘 구사의 흔적이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다.

① 모두 기운에 지쳐 쓰러졌다. 일시에 피곤과 허기가 연당아리처럼 내린다.(밤점 필자)

31) Ibid

32) Ibid

② 소대장님…… 우러러 쳐다보는 마지막 부하의 그 눈빛, 적막을 더듬어 가며 죽음을 재는 그 눈은 일음장보다도 더 차가운 그 무엇이 있었다.(방점 필자)

③ 무난히 대로를 횡단하였다. 눈두렁에서 내려서자 재빠르게 임페물을 이용해 가며 걸음을 다그쳤다.(방점 필자)

④ 일순간이 지났다. 도대체 총알은 어디서부터 날아온 것인가?(방점 필자)

⑤ 오랜 군대 생활에 이겨 온 굳은 의지가 엿보일 뿐이다. (방점 필자)

우선 ①의 문장에서 방점 친 ‘기운에’라는 말은 문맥상 적확하지 못한 어휘 선택이다. 기운 때문에 지쳐 쓰러졌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으므로 ‘기운에’라는 말 자체를 빼버리고 ‘모두 지쳐 쓰러졌다.’라고 쓰는 편이 더 자연스러울 듯하다. 또한 ‘피곤과 허기가 연등어리처럼 내린다.’는 구절에서는 연등어리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문맥상 명확하지 못하다. 아마 ‘피곤과 허기가 연기처럼 온몸에 스며든다.’는 의미를 전달하기 위한 문장이 아닌가 생각된다. 문장 ②에서는 ‘눈은’이라는 말보다는 ‘눈에는’이라는 표현이 더 적절한 표현이라 하겠다. ③에서도 ‘다그쳤다’라는 표현은 적확하지 못한 언어 사용이다. 오히려 ‘다그쳤다’나 ‘재촉했다’는 표현으로 바꾸는 것이 좋을 듯하다. 문장 ④번 역시 총알이 ‘어디서부터’ 날아왔는가보다 ‘어디로부터’라는 표현이, 또 ⑤의 ‘오랜 군대 생활에 이겨 온 굳은 의지’라는 말보다는 ‘오랜 군대생활으로 강해진 굳은 의지’ 등의 표현으로 써야 문맥상 더 자연스러울 듯하다. 이와 같은 부적확한 어휘 구사의 구문들을 두고 볼 때, 그의 소설 문체를 두고 ‘신선하고 확실하다.’³³⁾ 한 지적은 수긍할 수 없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작품의 일정 부분에서 허무사상이 너무 지나치게 노출되어 절망적인 데로 기울어져 있는 점은 정통 실존주의와는 어느 정도 거리가 있는 요소로, 이 작품이 지니고 있는 한계점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문체에 있어서도 전형적인 행동주의 소설에서 볼 수 있는 박력 있는 문장을 사용하기보다는 일부에서 어설픈 구문이 보일 뿐 아니라, 적확하지 못한 어휘나 구문이 곳곳에서 사용되고 있는 점도 그의 작품상의 한계성으로 보인다.

33) 이광훈, 『오상원과의 그의 작품』, 『韓國文學大全集 30』(學園出版社, 1988), p.422.

IV. 결 론

이 글은 우리 문단에서 1950년대 중반기에 등장한 전후 신세대 작가의 한 사람인 吳尙源의 단편 <猶豫>에 반영된 행동주의 문학적 성격과 그 한계성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 吳尙源은 극한상황에서도 인간의 조건을 극복하고 행동하는 작가, 현존에의 충실성을 강조한 작가로서, 행동주의가 초창기 우리 문단에 소개되어 그것이 본격적으로 작품에 수용된 것이 吳尙源의 작품에 이르러서야 본격적인 의미를 띠는 점에서 그의 작품의 행동주의적 성격을 규명해 보는 일은 의미 있는 작업이라 생각되었다.

吳尙源이 활동했던 당시는 전후의 불안한 시대 상황으로 인해 허무의식에 바탕을 두고 있는 실존주의적 경향이 도입되는데, 이러한 경향은 그의 소설에도 그대로 수용되고 있다. 실존주의에서는 특히 현존재가 한계에 이르렀을 때 하나의 출구로서 행동주의가 표출되는데, 특히 吳尙源은 작품의 등장 인물을 포로나 낙오자의 처지에 있거나 극한상황에 처한 인물들로 설정하여 혁명과 모험을 배경으로 그 속에서 인간의 본질과 가치를 탐구하며 문제를 인식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猶豫>에서는 인민군 포로가 되어 존재의 가치가 부정되는 고립된 상황에 처해 있는 주인공이 등장하여 흑백논리가 지배하는 비인간의 세계 속에 처한 인간이란 고독한 존재, 언제나 자기 혼자서 선택해야 하는, 던져져 있는 존재임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하여 작가는 이 작품을 통해서 극한상황 속에서도 목숨을 구걸하지 않고 거짓된 삶 살기를 거부하는 행동주의자의 전형적인 인간상을 보여준다. 또 극한상황 속에서도 인간만이 가장 소중한 존재이며, 과연 인간이란 어떤 존재이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근본적인 물음을 제기하기도 한다. 그러면서도 죽음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으로 자신의 몸을 내던짐으로써 죽음과 당당히 맞서는 행동주의자의 전형적인 모습을 제시한다.

그러나 작품의 일부에서 극단적인 허무주의 사상이 노출되어 지나친 절망감에 빠져 있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또 문체면에서도 행동주의 소설에서 볼 수 있는 비정함과 냉혹함의 구사에서 다소 부적절한 요소를 보이고, 표현

상으로도 어설피고 적확하지 못한 요소가 곳곳에서 발견되기도 한다.

비록 이 작품은 내용과 형식적인 면에서 실존주의 소설로서의 한계와 문체 면에서도 미흡한 요소를 지니고 있기는 하지만, 이전의 작품에서는 보기 어려운, 극한상황에 처한 인간 존재의 의미와 인간 행동의 의미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을 제기하고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행동성을 강조한 한 편의 행동주의 소설이라는 점에서는 그 의의가 높이 평가되어야 하리라 본다.

참고문헌

- 丘仁煥 外, 『韓國戰後文學研究』(三知院, 1995).
- 김상선, 「인간존재의 발굴」, 『신세대 작가론』(일신사, 1982).
- 김영민, 『한국현대문학비평사』(소명출판, 2000).
- 金宇鐘, 『韓國現代小說史』(成文閣, 1995).
- 손광식, 「근현대문학의 사적 전개와 미적 양상(II) -해방 후 편」(도서출판 보고사, 2000).
- 송기형, 『앙드레 말로』(건국대학교 출판부, 1995).
- 吳尙源, <猶豫>, 『新韓國文學全集』(語文閣, 1979).
- _____, 「초조한 마음」, 『한국전후문제작품집』(신구문화사, 1960).
- 유종호, 「청년의 문학」, 『동서한국문학전집』(동서문화사, 1987).
- 이광훈, 「오상원과 그의 작품」, 『韓國文學大全集 30』(學園出版社, 1988).
- _____, 「폐허 위의 인간 회복」, 『韓國現代文學全集』(三星出版社, 1981).
- 이대영, 『한국 전후실존주의 소설 연구』(국학자료원, 1998).
- 임현영, 『한국현대문학사상사』(한길사, 1988).
- 전기철, 『한국전후문제비평연구』(도서출판 서울, 1994).
- 정명환 외, 『20세기 이데올로기와 문학사상』(서울대학교 출판부, 1997).
- 정희모, 『1950년대 한국문학과 서사성』(깊은샘, 1998).
- 曹街京, 『實存哲學』(博英社, 1991).
- 韓釜淑, 「實存主義」, 『現代的 哲學(韓釜淑·車仁錫 共著)』(서울대학교 출판부,

1982).

니체, 『니체全集』 제4권, 『權力에의 意志(朴煥德 譯)』(東星出版社, 1974).

장 폴 사르트르 著, 『實存主義는 휴머니즘이다(방곤 譯)』(文藝出版社, 1997).

Arnold P. Hinchliffe, 『不條理文學(黃東奎 譯)』(서울大學校 出版部, 1986).

金良浩, 『戰後實存主義小說研究』(檀國大學校 박사학위 논문, 1992).

유학영, 『1950년대 한국소설연구』(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87).

이해년, 『1930년대 한국행동주의 문학론 연구』(부산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94).

<Abstract>

Against with the Nihilism and Death

- The meaning of the Oh Sang-won's short story, *U-yeah* -

Kim, Do-hee

This thesis was purposed to investigate a literary character of behaviorism and the limitation which was reflected the Oh Sang-won's short story, *U-yeah*, as one of the new generation writers appeared at the middle of 1950's.

As a writer who Oh Sang-won overcomes human being's condition in an extreme situation, puts his theory into action, and emphasizes faithfulness in one's life, in the point of showing a real meaning which behaviorism wasn't introduced by our the literary world and accepted until it approaches his works, I thought that it was a meaning thing to examine behaviorism nature in his works closely.

In those days, existentialism which was based on nihilism which was caused by an unstable social conditions in the postwar years was introduced and such a tendency was accepted in his works as it is.

Protagonist, a prisoner of North Korea army, under the situation which is ignored human being's right and isolated appears in the short story, *U-yeah*. Also he shows human being as a lonely being chooses something for himself and leave himself alone in the world by describing human being's look under impersonal world which is ruled by black and white theory in the work. The writer shows a typical image of human being as a behaviorist who is not threatened by an external pressure and refuses to live an untrue life in an extreme situation in this work. In addition to this, he raises a fundamental question about what human being as the most

important existence is and how he lives his life. Nevertheless, he describes a typical image of human being as a behaviorist who is not afraid of his death and stand against death by killing himself.

But the work has a limitation as an existentialism one in the respect that excessive desperation and an extreme nihilism reveal in the contents. And he seems to use hard-boiled style which describes severe and harsh reality in the behaviorism novel. In the style of writing, it has also a limitation as non-sense and incorrect expression is shown in the center of work. Even though *U-yeah* has some problems in above, unlike previous works, in the point of showing basic questions about the meaning of the existence and behaviour of human beings and proves it is a behaviorism novel in emphasizing actions in desperate condition, I think that it is high evaluated the worth of the literary history.